

트럼프, '이란 제안' 검토 회의...핵 '레드라인' 유지

이란 "핵은 나중에 다루자" 제시...미국은 '신중' 고농축 우라늄 절반 자국내 두자고 제안...美 '되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과 관련한 이란의 최신 제안을 참모들과 논의하고 있지만, 핵무기 보유 저지 등 핵심 '레드라인'은 유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케러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팀 회의를 열어 이란의 제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이란과 관련한 대통령의 레드라인은 매우 분명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안에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대신 미국이 이란 항만 봉쇄를 해제하는 내용의 '중간 합의'를 이란이 제안했다는 보도 이후 나왔다.

이 제안에는 핵 프로그램 등 복잡한 쟁점은 후속 협상으로 미루는 방안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은 특히 핵 문제와 관련한 이 제안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이때는 전했다.

이란은 협상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미국의 태도를 문제 삼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전날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 양국 협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이란 국민은 미국의 공격을 견뎌냈고, 앞으로도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파키스탄 등 중재국에 미국이 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군사행동을 중단할 경우 분쟁 종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미국은 핵 문제를 모든 합의의 핵심 조건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해결 없이는 해상 봉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미국은 이란에 20년간 핵 프로그램 중단과 약 440kg 규모의 고농축 우라늄 전량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이란은 자국이 5년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한 뒤 추가로 5년간 저농도 민간용 농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시했다. 또 보유 중인 우라늄을 희석해 절반은 국제 감시하에 자국에 두고, 나머지 절반은 러시아에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충분하지 않다고 거부하자 이란은 핵 문제를 일단 뒤로 미루는 새로운 접근법을 내놓았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란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입장차가 크지 않다는 평가도 나왔다.

CNN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 간 물밑에서 치열한 외교 접촉이 이어지고 있으며, 잠재적 합의의 첫 단계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른 시일 내에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부정적 전망도 있다. /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베카시에서 발생한 열차 충돌 사고 후, 구조대원들이 잔해를 조사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인니 자카르타 외곽서 열차 충돌...최소 2명 사망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외곽에서 27일(현지시간) 열차 두 대가 충돌해 최소 2명이 사망했다.

인도네시아 철도공사(KAI)는 이날 늦은 밤 자카르타에서 약 25km 떨어진 베카시 티무르역 인근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AFP 통신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KAI 대변인은 현지 매체 콤포

스 TV에 "병원 기록에 따르면 두명의 희생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군과 소방대, 구조대가 여전히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부상자 수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들을 가능한 한 빨리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원인에 대한 상세한 경위는 추후 관할 당국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콤포스 TV는 이번 사고가 장거리 열차와 통근 열차 간 발생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노후화된 철도와 열차 시스템 등으로 열차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2024년 1월엔 서자바주 반둥시에서 통근 열차와 급행열차가 충돌해 4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 2023년 11월에는 동자바주에서 열차와 미니버스가 충돌해 11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백악관 만찬 총격범 기소...대통령 암살미수 혐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 장소 바로 앞에서 총격 사건을 벌인 용의자가 27일(현지시간) 대통령 암살미수 혐의로 기소됐다고 AP 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용의자 콜 토마스 앨런(31)은 사건 현장에서 체포돼 구금돼 있었으며, 이날 워싱턴DC 연방 법원에 출석했다.

검찰은 범행 동기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가 사건 직전 가족들에게 보낸 선언문에는 자신을 '친절한 연방 암살자'라고 칭했고, 이름을 적지 않았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타겟으로 삼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점,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점 등을 문제 삼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앨런은 또한 주(州)간 총기 및 탄약 운반법 위반, 폭력 범죄 도중 총기 발사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앨런에 대한 재판 전 구금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앨런은 지난 25일 오후 8시34분께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이 열린 워싱턴DC의 워싱턴 힐튼 호텔 만찬장 근처의 보안검색 구역에서 산탄총과 권총, 칼 등으로 무장한 채 보안검색대를 돌진해 통과한 직후 당국에 제압됐다.

앨런은 당시 총기를 발사해 보안 요원 1명이 맞았으나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던 덕분에 크게 다치지 않았고, 만찬장에 있던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당국자 등 참석자들은 모두 무사히 대피했다. /연합뉴스

방글라 낙뢰 사망자 속출...14명 숨져

방글라데시 전국에서 계절성 폭풍우에 따른 낙뢰가 발생, 최소 14명이 숨졌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홍콩 사우스 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방글라데시 여러 지역에서 갑작스러운 폭우와 함께 벼락이 떨어지면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 10살 소년은 자신의 집 밖 도로에 다른 2명과 함께 서 있다가 벼락에 맞았고, 3명 모두 현장에서 즉사했다.

이번 낙뢰로 인한 희생자 대다수는 들뜬에서 일하던 농민과 노출된 야외 지역에 있던 노동자들이라고 현지 당국은 전했다.

이 밖에 여러명이 낙뢰로 부상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중태다. /연합뉴스

뉴질랜드 소녀상 설치, 日 반대 무산...“반대 의견높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유지에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다 일본 측 반대에 시 당국이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28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 지구 위원회가 소녀상의 시유지 설치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소녀상은 한국 시민단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뉴질랜드에 기증한 것으로, 오클랜드 바리스 포인트 보호구역 내 한인 문화 정원에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됐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오사와 마코토 주

뉴질랜드 일본 대사는 오클랜드 시의회에 소녀상 설치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 "불필요한 관심 유발"이 일본과 한국, 일본과 뉴질랜드 관계 모두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대사관 관계자도 가디언에 "소녀상이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설치 시 일본 내 일부 도시들이 뉴질랜드 도시와의 자매결연 관계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교도통신은 오클랜드시가 올해 1월까지 시민들로부터 소녀상 설치에 관한 찬반 의견 600여건을 접수한 결과 60%가 소녀상 설치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설치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이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

한 번에, 한 손에!
1천만 고객이 선택한 NH국민은행!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확인하세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스마트한 카드!
올바른 NEW HAVE 카드

- 기본예금과 이자율 0.7% NH로 특별
- 신입 고객 우대: 2% 예금 / 1% 예금
- 국세공정 관련 수수료 서비스 혜택
- 농협 연금·보험·신용대출·이체수수료 혜택을 다해 보세요

농협·신협·지역
걱정의 피로, 하나로 완성!
NH농비보험치로보험

- 일평균 10만 원의 연회비 무료 제공
- 20~60세, 유망직도 간편 가입 가능
- 100세까지 비경쟁형해당액의 가입사
- 경신형 담보 제공
- 청년·노년·가족 및 청년·노년·가족 보험 가입자 1% 할인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히다

- 환전 | 해외여행 가까운 서광주농협에서 환전하세요
- 해외송금 | 안전한 서광주농협 해외송금으로 안심하고 보내세요

농업인의 내일을 키우는 금융
농협이 함께 합니다.

- 농업인 전용 금융지원
- 농지담보대출 특화상품
- 농지매매자금 대출인도 최대 80%
- 보유 농지 활용 자금 마련
- 영농·생활자금 지원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기아지동지점 062)385-4977~8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비 들 지 점 062)381-1971~2	등 립 지 점 062)513-8521~3	지 평 지 점 062)381-8212~3	쌍 촌 지 점 062)381-6551~2
동림아니로지점 062)531-774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등 운 지 점 062)528-2640~2	용 신 지 점 062)526-0222~3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아니로마트등림점 062)511-2901~3	영동센터지점 062)361-4472~4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와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지역 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